

지역 소식통



정읍 김명관 고택에 내려앉은 완연한 봄

정읍시 산외면에 위치한 국민속문화유산 '김명관 고택'이 완연한 봄을 맞아 고즈넉하고 단아한 풍경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조선 시대 전형적인 양반 가옥의 형태를 온전히 간직한 김명관 고택은 봄을 맞아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 싱그러움 생기가 감돌고 있다. 나지막한 돌담 너머로 피어난 봄꽃과 단아한 한옥의 부드러운 곡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고택 특유의 평온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뒤로는 참하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동진강 상류가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의 푸른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하늘아름 간 집'의 탁 트인 풍경이 일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용 면세유 지원금 조기 지급 신청

정읍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지원금을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자다.

이번 조기 집행을 통해 지원되는 물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량의 50%에 해당한다. 유종별로는 리터당 경우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원 등 상승액의 40% 수준을 보전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부안군,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부안군은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구에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군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해 오는 5월 18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군민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며 신청 첫 주에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오는 2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이 해당된다.

단 오는 5월 1일 금요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5·0 대상자는 오는 30일 목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4·9 대상자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부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 지정까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총 3673개소로 일부 하나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나서

휴양림·습지센터·하천정비·국민체육센터 등 12개 사업장 방문... 추진상황 점검·안전관리 당부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1일부터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2개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아산면에 위치한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폈다. 휴양과 체험 기능이 어우러진 사업인 만큼 각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탐사터 운곡습지 센터 건립사업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곡습지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탐방·전시·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착공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고창군 중심을 가로지르는 고창천의 재해 예방 기능 강화와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1일부터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2개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를,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착공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고창군 중심을 가로지르는 고창천의 재해 예방 기능 강화와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인 우선 이용이 보장되는 체육시설이자 평생학습 기능이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공단지 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 'ZERO' 도전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주요기업 지원 정책 공유

부안군은 지난 21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은희준 농공단지협의회장 및 입주기업 대표 20여명이 참

석했으며 농공단지 주요 현안과 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했다.

또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공단지 지속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했으며 부안군 일지리센터의 기업 활성화 지

원사업 안내와 함께 부안소방서 주관 화재예방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군은 현재 농공단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공지사항 및 지원사업을 안내 중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지역 고용 활성화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정읍체육관에서 '2026 상반기 정읍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읍시, 구직자 취업 지원 나서

6월 23일 정읍체육관서 '정읍시 취업박람회' 개최

기업과 일대일 현장 면접 진행·참여자 면접비 지원

정읍시가 지역 고용 활성화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정읍체육관에서 '2026 상반기 정읍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면접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직자는 기업과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직접 전달하고, 기업은 현장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행사에는 구인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기

관은 채용 절차와 준비 사항 등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유관기관은 일자리 정책 홍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머리 손질(헤어) 상담 등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면접 참여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구직 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꽃정원, 튼튼 만개 속 상춘객 맞이 한창

5월 중순 금영화·꽃양귀비 등 개화... 고창 봄꽃 명소 기대

'고창 꽃정원'에 튼튼이 만개하면서 상춘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형색색의 튼튼이 절정을 이루면서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개화 기간 꽃정원 일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사진 촬영을 즐기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고창 봄철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잡았다.

특히, 고창 꽃정원 사진을 인증하거나 '고창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방문객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한 '커피정거장'은 방문객들에게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18~19일 진행된 거리공연은 봄날의 감성을 더해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튼튼이 지는 시기 이후에도 고창 꽃



정원은 봄꽃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5월 중순에는 금영화, 꽃양귀비, 안개꽃, 수레국화 등 다양한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고창읍성 둘레길은 철쭉이 붉게 물들어 봄 정취를 더하고 있고, 읍성 동문과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고창 꽃정원으로 이어져, 고창군이 지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